

『直指』중 ‘黃蘗希運’條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분석*

A Bibliographic Analysis on ‘Musim’ in the Article
‘Hwangbyogheeun’ of *Jikji*

金 聖 洙 (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黃蘗希運條 ‘당장에 無心하라’의 |
| 2. 黃蘗希運條 ‘마음(一心)’의 분석 | 분석 |
| 3. 黃蘗希運條 ‘無心’의 분석 | 5. 결 론 |
| | <참고문헌> |

<초 록>

이 논문은 『직지』(上卷) ‘黃蘗希運’條에 표방되는 ‘無心’에 관하여 書誌的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직지』 ‘黃蘗希運’의 法語 15개 항목의 典據를 분석하여, ‘① ‘마음(一心)’, ② ‘無心’, ③ ‘直下無心(당장에 무심하라)’이라는 소주체로 구분하고, 각 범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마음(一心)’의 分析에서는, ‘중생의 한마음(一心) 그대로가 곧 부처이니, 당장에 無心하라’ 등 黃蘗希運이 주장하는 ‘마음’의 문제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제3장 ‘無心’의 분석에서는, ‘無心이 道를 行함이다’ 등의 無心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黃蘗希運의 명쾌한 解答들을 細密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제4장 ‘당장에 無心하라’의 분석에서는, ‘마음이 法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 깨달음의 방법으로써 ‘당장에 無心하라(直下無心)’, 이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究竟)이다’라고 提示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7세기 후기에 六祖惠能에 의하여 胚芽된 ‘無念·無心’의 思想은, 9세기 전기에 黃蘗希運에 의하여 ‘無心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됨’으로써 드디어 ‘無心の 結實’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要語: 『直指』, 白雲景閑, 無心, 黃蘗希運

* 이 논문은 2015-2016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16년 12월 1일 최초심사일: 2016년 12월 15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6일

<ABSTRACT>

This research is a bibliographic analysis of ‘Musim’ presented in the Article ‘Hwangbyogheeun’ of *Jikji* (the First Volume). For this research, the sources of 15 items of Buddhistic terms from ‘Hwangbyogheeun’ are categorized into three themes of ‘① ‘Ilsim (Mind)’, ② ‘Musim (The mental state of freeing from the worldly desires)’, ③ ‘Jikha Musim (Leaving at once the worldly desires)’ and the content of each Buddhistic term is analyze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Chapter 2 ‘Ilsim’, it is found that Hwangbyogheeun’s claim that the common people’s mind itself is Buddha, and then it is important to leave immediately the worldly desires was clearly stated.

Second, in Chapter 3 ‘Musim’, it is found that Hwangbyogheeun’s answers to various questions over ‘the mental state of freeing from the worldly desires’ are presented in detail, including the message ‘Musim is to act on the truth.’

Third, in Chapter 4 ‘Jikha Musim’, it is confirmed that by realizing that ‘the mind itself is the Buddhist canon’, people can reach the state of ‘leaving the worldly desires at once’, and it is a perfect awakening.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idea of ‘Munyeom · Musim’ conceived by Yukjo Hyeneung in the late 7th century was specifically presented by Hwangbyogheeun as the concrete method of reaching the state of Musim, and then came to fruition in the early 9th century.

Key words: *Jikji* (『直指』), Baegun Hwasang (白雲和尚), Musim (無心),
Hwangbyogheeun (黃蘗希運)

1. 서론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直指)』은 그 完全書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白雲和尚(景閑: 1298-1374)이 손수 抄錄한, 부처와 역대 조사들(佛祖)이 직접 가리키고(直指) 있는 깨침(心)에 대한 핵심(體)적인 중요한 구절들(要節)의 책’을 말한다.

필자는, 주제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직지』에 內包된 ‘無心’에 관하여 몇 편의 논고를 제출한 바 있다.¹⁾²⁾³⁾ 그 중 “『직지』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변증”에서는,

- 1) ① 金聖洙,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연구,” 『한국문화정보학회지』 제46권 제4호 (2012. 11), 119-146.
- ② 김성수,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5집 (2013. 9), 183-225.
- ③ 김성수, “『직지』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변증,” 『서지학연구』 제57집(2014. 3), 83-119.
- 2)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연구”에서는, 첫째 『직지』에서 백운화상이 제시한 ‘無心’은 ① ‘마음쓰미 없음’, ② ‘마음이러 할 것도 없음’, ③ ‘마음 없음’ 등으로 해당 偈頌의 문맥에 따라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백운화상의 無心은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平常無事底心: 平常心)’이며 ‘내려놓음(放下着)’이면서 동시에 ‘깨달음의 성품(眞如之性)’을 의미함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無心은 달마조사의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켜 자신의 성품을 꿰뚫어 보아 깨달음을 얻음(直指人心 見性成佛)’ 및 석가모니의 ‘내려놓음(放下着)’ 계승에 契合하고 있다. 그리하여 無心은 ‘구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음’이며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고(放下着) 다만 ‘마음쓰미 없음(無心)’이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을 것이다”라고 경험적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無心’을 특히 강조한 백운화상의 ‘無心禪’은 達摩禪宗이나 육조혜능의 禪法 및 臨濟宗 祖師禪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계승하여 밝힌 禪法임을 파악하였다.
- 3)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지』 상권 中國禪師條에 표방되는 ‘無心’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직지』 상권의 내용에서 ① ‘無念·無心’의 처음 등장을 그 胚芽 단계로 보고, ② 무심은 누구에 의하여 發芽되었는가? ③ 무심은 어느 시대 어떤 禪師에 의하여 開花하였는가? ④ 무심은 누구에 의하여 그 結實을 보았는가?의 문제들을 서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 ‘無念·無心’의 胚芽’에서는, ‘無念’은 7세기 후기에 六祖慧能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고, 8세기 초기에 荷澤神會가 無念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② ‘無心’의 發芽’에서는, ‘無心’ 용어는 8세기 중기에 南陽慧忠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③ ‘無心’의 開花’에서는, 8세기 후기에 馬祖道一에 의하여 ‘마음(心)이 바로 부처(佛)이며, 平常心이 道이면서 또한 無心이다’라는 개념이 정립되었다. ④ ‘無心’의 結實’에서는, 9세기 전기에 黃蘗希運에 의하여 ‘無心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됨’으로써, 드디어 無心의 結實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하였

『직지』에 抄錄된 ‘無念·無心’과 관련한 法語 중에서, ‘黃蘗希運’⁴⁾條를 제외⁵⁾한 ‘六祖惠能·荷澤神會·南陽慧忠·馬祖道一’ 관련 사항들까지 분석함으로써 白雲和尚 景閑의 無心に 관한 正體性を 導出하여 보았다. 그 결과 ‘白雲의 無心은 馬祖道一·六祖惠能·菩提達磨의 禪思想에 철저한 基盤을 두고 있음’⁶⁾을 파악할 수 있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直指』⁷⁾ 上卷 黃蘗希運條에는 ‘無心’과 관련한 法語들이 무려 15項(항목)이나 拔萃·抄錄되고 있다.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지』에 수록된 각 祖師의 법어 중 ‘無心’이라는 要語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黃蘗希運

다. 따라서 無心禪 思想은 臨濟宗(臨濟義玄: ?-866)이 성립되기 그 이전, 즉 육조혜능부터 혜능의 第5世인 황벽희운의 시대까지의 5대에 걸쳐서 완성되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無心禪은 혜능의 南宗禪, 즉 六祖禪法의 정통을 계승한 祖師禪의 本質임’을 파악하였다.

- 4) 黃蘗希運(?-850): 중국 唐 나라 禪師. 宣宗 皇帝가 내린 諡號는 ‘斷際禪師’. 어려서 洪州 黃蘗山으로 출가. 百丈懷海를 찾아가 그의 法을 이어받음. 즉 ‘六祖惠能 ⇒ 南嶽懷讓(677-744) ⇒ 馬祖道一(709-788) ⇒ 百丈懷海(749-814) ⇒ 黃蘗希運(?-850) ⇒ 臨濟義玄(?-866)’으로 이어지는 法脈으로, 황벽희운은 臨濟宗 임제의현의 스승이고, 육조혜능의 5世孫. 848년 裴相國(裴休)의 청으로 宛陵의 開元寺에 조석하면서 학인들을 제집함. 시호는 斷際. 저서는 『傳心法要』 1권과 語錄이 있음. 黃蘗宗을 開山하였다. 『傳心法要』는 당나라 裴休가 황벽선사에게서 직접 들은 법문을 모아 기록한 『黃蘗山斷際禪師傳心法要』를 일컫는 것으로, 간혹 그 년월을 기록하였다.

황벽희운의 法門들은, 『祖堂集』 권16, 『景德傳燈錄』 권9, 『宋高僧傳』 권20, 『天聖廣燈錄』 권8, 『古尊宿語錄』 권2·3, 『四家語錄』 권4·5, 『五燈會元』 권4, 『指月錄』 권9 등에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내용이 서로 다르게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명나라 때 增補再編된 『四家語錄』은 『傳心法要』와 『宛陵錄』의 교재로서는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退翁性徹 編譯, 『古鏡』 (합천군: 장경각, 불기2538), 407.).

- 5) 즉, 『직지』에서 ‘無心’이라는 要語(key-word)가 채택된 祖師 중, 黃蘗希運(?-850)의 語錄에서 가장 많은 법어를 채택한 사례가 된다. 따라서 이는 ‘황벽희운의 無心 사상이 백운화상에게 끼친 영향이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극명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황벽희운의 無心に 관한 분석은 별도의 논고로 독립시키고,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음.
- 6) 김성수, “『직지』의 無心に 관한 서지적 변증,” 『서지학연구』 제57집(2014. 3), 118.
- 7) 『직지』에는 과거7불 및 西天(印度) 28祖師와 중국 110禪師 등의 가르침 중 그 핵심만을 선별하여 抄錄함으로써 총 145家의 語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 8) 『직지』 중 祖師語錄의 句節이 가장 많이 초록된 경우는 ‘誌公和尚’條이다. 백운은 지공의 <大乘讚頌> 全文과 <什四科頌> 全文을 『직지』에 초록하고 있다. 따라서 『직지』에서 ‘黃蘗希運’조는 ‘지공화상’조 다음으로 많은 法語들이 수록된 사례라 할 수 있다.

『直指』 중 ‘黃蘗希運’條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분석

條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지』 ‘黃蘗希運의 法語 15개 항목’의 典據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이들 15개 항목은 먼저 ‘①『宛陵錄』(제18장)과 『傳心法要』(제3·5·3·4장), ②『宛陵錄』(제15·3·10·10·16장), ③『傳心法要』(제6·6·7·7·2장)’라는 3단락(部)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이들 3部の 내용은 각각 ‘①‘마음(一心)’, ②‘無心’, ③‘直下無心(당장에 무심하라)’라는 소주제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 15개 항의 각 범어에 관한 要語를 抽出한 후, 각 범어의 내용들을 차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백운화상이 초록한 『직지』의 편성 방법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1> 『直指』 黃蘗希運條 각 項의 要語 및 그 典據⁹⁾

	『直指』 黃蘗希運 條	黃蘗斷際禪師語錄 / 『傳心法要』·『宛陵錄』	비고
1	高僧은 어디 갔는가?	宛陵錄 제18장, 遊行 및 機緣, 下段	
2	근원이 청정한 마음	傳心法要 제3장, 근원이 청정한 마음, 前半部	
3	空은 본래 없다	傳心法要 제5장, 虛空이 곧 法身, 前半部	
4	無心이 法이다	傳心法要 제3장, 근원이 청정한 마음, 後半 冒頭	
5	불생불멸이 부처이다	傳心法要 제4장, 불생불멸이 곧 부처, 下段	원전 도치
6	無心이 道를 行함이다	宛陵錄 제15장, 無心이 道를 行함이다	
7	法 有無의 견해도 내지 말라	宛陵錄 제3장, 마음을 쉬고 견해를 잊음, 前半部	
8	마음에는 妄想이 없다	宛陵錄 제10장, 心外無佛, 中盤部	
9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라	宛陵錄 제10장, 心外無佛, 後半 中間部	
10	三界를 벗어남	宛陵錄 제16장, 三界를 벗어남, 前半部	
11	無心하면 境界가 없다	傳心法要 제6장, 마음을 잊어버림(無心), 前半 後尾	
12	마음과 경계는 하나이다	傳心法要 제6장, 無心, 後半 中間部	
13	마음이 法이다	傳心法要 제7장, 마음이 法이다, 前半 中間部	
14	마음이 空하면 경계도 空하다	傳心法要 제7장, 마음이 법이다, 前半 後尾部	
15	당장에 無心하라(直下無心)	傳心法要 제2장, 直下無心, 後半 中間 部分	원전 도치

9) 『직지』 黃蘗希運條의 각 法語에 대한 要語 선정에는, 무비스님의 견해(무비스님, 『직지 강설』 上 (서울: 불광출판사, 2011))를 적극 참고하였고, 그 典據인 『황벽단제선사어록』에서의 요어는 성철성철의 제시(퇴옹성철, 『古鏡』 (합천: 장경각, 불기2538))를 참조하여, 필자 나름의 견해를 첨가하여 채택한 要語임.

2. 黃蘗希運條 ‘마음(一心)’의 분석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지』 黃蘗希運條의 첫 단락(部)의 第1項은 『黃蘗斷際禪師語錄』의 筆錄者 裴休(797-870)와¹⁰⁾ 황벽조사와의 ‘만남(機緣)’이 먼저 제시(『宛陵錄』 第18章)되고 나머지 4項은 『傳心法要』 제3·5·3·4장의 法語에서 각각 발췌·초록한 것이다. 본 章에서는 이와 같은 황벽희운條 제1단락에 제시된 5개 항목을 ‘마음(一心)’에 관한 소주제를 부여하고, 그 각각의 항목 내용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직지』 황벽희운條 第1項에는, ‘마음’이라는 소주제 중, ‘高僧은 어디 갔는가?’라는 要語로 압축될 수 있는 법어로, 이른바 ‘裴休(裴相國)와 황벽선사와의 禪問答’이 수록되어 있다.¹¹⁾ 즉 <그림 1>의 右側 第3行에서부터 보는 바와 같이,

黃蘗希運禪師께서는 일찍이 大衆을 홀으시고 洪州 開元寺¹²⁾에 머물고 계셨다. 이때에 相國¹³⁾ 裴休居士가 이 절에 들어오다가 壁畫[祖師閣의 초상화]을 보고 院主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 원주가 말하기를 “高僧

10) 裴休: 裴相國; 791-870. 唐 孟州 濟源 사람. 穆宗 長慶年間에 진사시험에 합격. 문장에 능하고 글씨도 잘 썼음. 불교를 신봉하고 특히 釋典(佛典)에 밝았음. 宣宗(大中皇帝: 846-859)이 즉위한 후 조정의 相公(相國) 벼슬에 올라 중앙행정을 담당하면서, 兵部侍郎이 되어 諸道鹽鐵轉運使에 오름. 852년(大中 6) 中書門下平章事와 中書侍郎에 올랐다. 禪宗에 귀의하여 여러 禪師들의 語錄에 逸話を 남겼다. 배후는 842년 宗陵觀察使로 부임한 뒤 황벽희운을 洪州 龍興寺로 모셔와서 道를 물었고, 848년에 宛陵觀察使 때에 황벽선사를 開元寺에 머물게 하면서 道를 물었다. 이 당시의 가르침을 적어두었다가 857년에 간행한 것이 바로 『傳心法要』이다. 唐 武宗이 일으킨 會昌(841-846)의 法難(폐불사건) 때에는 속세에 숨어사는 滄山靈祐(771-853)를 찾아내어 위산 同慶寺에 모시기도 하였다. 圭峰宗密(780-841)에게도 사사하여 그의 저작에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11) 특히 『景德傳燈錄』 卷12에 배후가 황벽선사를 만나는 逸話が 전하는데, 이 일화는 ‘黃蘗形儀’라는 話頭가 되어 『선문염수집(禪門拈頌集)』 등 여러 화두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항목은 현재의 한국불교 禪宗(曹溪宗)에서도 ‘黃蘗形儀’라고 지칭되는 話頭로 채택될 만큼 유명한 일화이다.

12) 宛陵 지방의 개원사와 다른 곳임. ‘大安寺’라고도 함.

13) 相國: 중국 最高의 官職. 일반 관리가 오를 수 있는 최고 지위인 승상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지위였고, 주로 개국공신이나 황제를 옹립한 신하에게 이 작위를 수여했다고 함(무비스님, 『직지 강설』 上 (서울: 불광출판사, 2011), 309).

을 그린 그림입니다.” / 배휴가 말하기를 “[고승의] 겉모습(形儀) [즉 그림]은 여기 [볼 수] 있으나, [이 그림의] 高僧[즉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 원주가 아무 말을 못하였다. 배휴가 말하기를 “이 절(寺)에 禪師는 없습니까?” / 원주가 말하기를 “希運上座라는 이가 있는데 아마도 禪師 같습니다.” / 배휴가 드디어 황벽선사를 청하여 뵈고, 院主에게 물었던 일을 여쭙었다. / [황벽선사]가 말하기를 “다만 묻기만 하시오” / 배휴가 말하기를 “형상은 볼 수 [즉, 그림은 여기] 있는데 고승은 어디 갔습니까?” / 황벽선사가 “배상공!”하고 부르니, 배휴가 “예”하고 대답하였다. / 황벽선사가 말하기를 “고승이 여기에 있네.” / 배휴는 그 말(言下)에 크게 깨달았다.¹⁴⁾



<그림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목판본 『직지』(1378) ‘黃蘗希運’條¹⁵⁾

14) 白雲景閑, 『直指』 木板本(1378), 第24張2面.

“黃蘗運禪師 曾散衆 在洪州開元寺. 裹休相國 一日 入寺 見壁間畫相 問院主云 壁間 是什. 主云 高僧. 休云 形儀 可見 高僧向甚處去. 主無語. 休云 這裏 莫有禪和. 主云 有希運上座 頗似禪和. 休遂召師 舉前話似之 師曰但請問來. 休云 形儀可見 高僧 向甚處去. 師召相公. 公應諾. 師曰高僧 在者裏. 公 於言下領旨.”

15) 白雲景閑,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上卷] 木板本(137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第24張2面.

라 하였다. 이 法語의 典據는 『宛陵錄』[第18章, ‘遊行과 機緣’의 末尾]¹⁶⁾에서 확인된다.

백운화상은 『직지』의 黃蘗希運條를 抄錄하면서 ‘黃蘗形儀’를 본 條의 冒頭에 내세운 것은 실로 壓卷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황벽선사야말로 육조혜능의 法統을 계승하면서, ‘마음’과 ‘無心’에 대하여 그 結實을 맺었다고 할 만큼 ‘存在 즉, 마음의 문제’에 관하여 가장 명쾌하게 提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黃蘗形儀’ 일화의 핵심은, ‘초상화의 高僧(즉, 본래의 마음자리)은 어디 갔는가?’의 질문에 ‘고승이 여기 있다’고 답한 것은 바로 이른바 ‘고승 아닌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하는 그놈이 바로 ‘고승[마음]’이라는 뜻이다.¹⁷⁾ 즉, “묻고 대답하는 존재[마음]하는 것은 절대 현재인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일 뿐이다. ‘그’도 ‘나’이고 ‘너’도 ‘나’이며, 지옥도 극락도 지금 여기 ‘나’이다. 시방세계와 과거 · 현재 · 미래가 지금 여기 ‘나’이다”¹⁸⁾라는 의미의 ‘存在, 즉 마음의 문제’에 관하여 注目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의 말끝(言下)에 바로 ‘배휴는 큰 깨침을 이루었다’고 함을 알 수 있다.

2) 『직지』 황벽희운條 第2項은, ‘마음’ 소주제 중, ‘근원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要語라 볼 수 있다. 즉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셨다. “이 本來 根源이 淸淨한 마음은 항상 뚜렷이

16) 裴休가 集記(輯錄)한 黃蘗希運의 語錄인 『傳心法要』라 하면 『宛陵錄』을 포함하여 일컫는데, 그 上部를 『黃蘗斷際禪師 傳心法要』 그리고 下部를 『黃蘗斷際禪師 宛陵錄』으로 나누어 부른다. 『傳心法要』는, 배휴가 江西 鐘陵에 관찰사로 재임할 때인 842년(會昌 2)에 龍興寺에서 황벽선사를 모시고 聞法하던 것과, 6년 후 安徽의 宛陵에서 다시 聞法하던 것을 직접 기술한 것이다. 『전심법요』는 구사하고 있는 언어들에 간명하고도 평이하며, 格外言句의 高峻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禪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禪의 개론서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조계정전의 정통 선사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긴요한 어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宛陵錄』은 배휴가 宛陵의 開元寺에서 聞法하던 기록을 基底로 하여 뒤에 [黃蘗禪師의] 侍者(弟子)들 측에서 엮은 것이라 추정된다(퇴옹성철, 『황벽단제선사어록/전심법요』, 『古鏡』, 406, 409.).

17) 德山(譯解), 『자유인의 길, 직지심경』(서울: 비움과소통, 2011), 180.

18) 무비스님, 『직지 강설』 上(서울: 불광출판사, 2011), 310.

밝아 두루 비추고 있는데도 세상 세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見聞覺知)’ 것만을 마음으로 삼고, 그 견문각지에 덥혀서서 끝내는 맑고 밝은(精明) 本體를 볼 수 없다. 다만, 당장에라도 無心하기만 하면, 본 마음의 자리(本體)가 저절로 나타나서 큰 태양이 허공에 떠올라十方을 두루 비추어서 다시 장애가 없게 된다.”¹⁹⁾

라 하였다. 이 인용문의 典據는 『傳心法要』[第3章 ‘근원이 청정한 마음’]의 중간 부분²⁰⁾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황벽선사는, 첫째로 ‘청정한 마음의 本體는 항상 등글고 밝으며 두루 비춘다’는 것과, 둘째로 그러한 마음의 본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당장에 무심 하라(直下無心)’라는 두 가지 命題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위 인용문에서 ‘청정한 마음(淸淨心)’은 바로 ‘一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황벽선사는 『傳心法要』에서 특히 ‘一心’과 ‘無心’을 강조하였는데, ‘一心(한마음)’에 관해서는 [第1章] ‘한마음 깨치면 부처(但悟一心 此卽眞佛)’에서,

황벽선사가 배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마음(一心)’일 뿐 거기에 다른 어떤 法도 없다. 이 마음은 본래로부터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 정해진 틀이나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고 … 이 한마음(一心) 그대로가 부처일 뿐이니, 부처와 중생이 새삼스레 다를 바가 없다. … / 부처에게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 겁(劫)이 지나고 몸이 다하더라도 바라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부처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 / 한마음(一心)을 깨치면 다시 더 작은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처이다. … 이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이다.”²¹⁾

19) 白雲景閑, 『直指』 木板本(1378), 第24張2面-第25張1面.

“師又曰 “此本源淸淨心體 常自圓明徧照 世人不悟. 具認見聞覺知爲心 爲見聞覺知所覆. 所以 不覩精明本體. 但直下無心 本體自現 如大日輪昇於虛空 徧照十方 更無障礙.”

20) 黃蘗希運(裴休 集記), 『傳心法要』, 『古鏡』 (합전: 藏經閣, 佛紀2538), 423, 425.

21) 黃蘗希運, 『傳心法要』, 『古鏡』, 417-419.

“師謂休曰 諸佛與一切衆生 唯是一心 更無別法. 此心 無始已來 不曾生不曾滅 … 無形無相 不屬有無 … 唯此一心 卽是佛 佛與衆生 更無別異 … / 使佛覓佛 將心捉心 窮劫盡形 終不能得 不知息念忘慮 佛自現前 此心是佛 佛卽是衆生. / 但悟一心 更無小法可得 此卽

라 하였다. 즉 황벽선사는 ‘한마음(一心)을 깨치기만 하면 바로 참된 부처(眞佛)가 될 수 있으며, 이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이고,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면서,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息心) 생각을 잊어버리면(忘慮) 저절로 부처가 됨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황벽선사는 ‘중생이 깨달아(悟) 부처가 되는 방법은 오로지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림(息心忘慮)에 있음’이라 하였는데, 이 ‘息心忘慮’가 바로 ‘無心’임을 感知할 수 있다. 또한 황벽선사가 ‘이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이다(卽心是佛)’라고 주장하는 명제는, 황벽회운 法系の 祖父라 할 수 있는 馬祖道一이 특히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馬祖는 ‘平常心이 道’라는 命題와, 그러한 평상심이 곧 부처라는 ‘卽心是佛’의 주장을 펼쳤다.²²⁾ 그리하여 黃蘗希運은 ‘六祖惠能(六祖) ⇒ 南嶽懷讓(七祖) ⇒ 馬祖道一(八祖) ⇒ 百丈懷海(九祖) ⇒ 黃蘗希運(十祖)’ 즉, 六祖惠能으로부터 黃蘗希運에게 전해 내려오는 法統과 그 思想을 온전하게 계승하고 발전시켰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六祖의 정통 法統을 계승한 황벽선사의 語錄인 『黃蘗斷際禪師語錄(『傳心法要』·『宛陵錄』)』을 集記한 裴休는, 황벽회운에 대하여 ‘오로지 한마음(一心)만을 전하고 다시 다른 법이 없으셨다’²³⁾라고 하였다. 이러한 ‘一心’을 깨닫고 밝히는 방법은 바로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림(息心忘慮)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② 황벽선사의 ‘당장에 無心하라’라는 법어의 의미는 ‘마음은 태양과도 같은데 다만 見聞覺知에 가려져서 그 本體를 볼 수 없는 바, 그 해결책으로 ‘당장에 無心하기만 하면, 그 본체(마음: 태양)가 저절로 나타남으로써 見聞覺知의 장에

眞佛 … 卽心是佛.”

이 說法은, 『전심전요』의 첫머리에 수록된바 이른바 ‘가장 으뜸 되는 法語’라 할 수 있다. 즉, 배후는 황벽선사로부터 設講받은 강의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黃蘗語錄(『傳心法要』) 集記의 第1章으로 수록한 듯하다.

- 22) 祖師禪을 나타내는 ‘卽心是佛’이라는 말도 사실은 馬祖의 말이 아니라, 『반주삼매경』·『관무량수경』·『대지도론』 및 華嚴宗의 法藏 등의 저작에도 널리 응용되었다. 특히 禪宗의 道信(580-650)도 『무량수경』의 ‘卽心是佛 是心作佛’을 인용하여 ‘부처란 곧 이 마음이며, 마음 밖에 달리 부처가 없다’고 강조한다(鄭性本, 『禪의 歷史와 思想』 (서울: 불교시대사, 1999), 363, 368. 참고).

- 23) 黃蘗希運(裴休 述), 『傳心法要』序文, 『古鏡』, 414-415.

가 없어질 것’이라는 요지라고 볼 수 있다.

③ 이 범어에서는 ‘깨침의 방법’으로써 ‘당장에 無心하라, 그러면 見聞覺知의 장애가 사라진다.’라는 사항만 제시되고 있고, 정작 ‘황벽선사의 無心에 관한 정의’는 수록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 이유는 백운화상이 『직지』를 초록하면서 ‘無念・無心’에 관하여, 육조혜능條에서 ‘無念’에 관한 法語들을 처음으로 초록한 이래, ‘六祖惠能의 無念 ⇒ 荷澤神會의 無念 ⇒ 南陽慧忠의 無心 ⇒ 馬祖道一の 無心’들을 이미 차례대로 屢次에 걸쳐 초록하고 이들을 『직지』에 순차적으로 수록하였기 때문에,²⁴⁾ 황벽희운條에서는 그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한 듯하다.

3) 『직지』 황벽희운條 第3項은, 위 第2項의 범어에 대한 解法이라 볼 수 있다. 즉 ‘당장에 無心하라’는 명제에 관한 구체적인 解法 내지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난 문장에 대하여, 황벽희운條 第3項은 ‘空은 본래 없다’라는 要語로 제시하고 있는 法語이다. 즉

선사가 또 말씀하셨다. [①] “凡夫는 경계를 취하고 道人은 마음을 취한다.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야 참된 法이다.”²⁵⁾ / [②] “경계를 잊는 것은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²⁶⁾ 사람들이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은空에 떨어져서 부여잡을 바가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空은 본래 空이라 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一眞法界)임을 알지 몰라서 그런 것이다.”²⁷⁾

라 하였다. 이 法語의 典據는 『傳心法要』[第5章 ‘虛空이 곧 法身’] 중 중간 부분

24) 김성수,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55집 (2013. 9), 183-225.

25) “‘法’이라고 했을 때에는, 境界를 초월하고, 마음이라는 생각도 놓아야 되고, 對象 境界가 모두 끊어져야 된다(덕산 초록, 『자유인의 길, 직지심경』, 183.)”라는 의미이다.

26) 이 말은 ‘對象(境界)을 끊기는 쉬우나, 내 마음이라는 생각을 놓기는 더 어렵다(덕산 역해, 『자유인의 길, 직지심경』, 184.)’는 의미이다.

27) 白雲景閑, 『直指』木板本(1378), 第25張1面.

“師又云 凡夫取境 道人取心 心境雙亡 乃是眞法. / 忘境猶易 安心至難 人不敢安心. 恐落空無撈摸處殊 不知空本無空唯一眞法界耳.”

의 핵심만을 발췌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위 인용문에서는 ① ‘범인은 경계를 취하고 道人은 마음을 취한다.’는 대목과, ② ‘경계를 잇는 것은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잇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구절로 2구분할 수 있다.

① ‘범인은 경계를 취하고 道人은 마음을 취한다’는 구절은 ‘세상만사를 둘로 나누면 마음과 경계이다. 보통 범부들은 눈에 보이고(見) 귀에 들리는(聞) 경계를 취한다. 그러나 道人은 일체 존재의 주체인 마음을 취한다. 하지만 마음도 잊어버리고 경계도 잊어버려야 그것이 진실한 법(眞法)이다’²⁹⁾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하여 위 황벽희운條 제2項에서 ‘당장에 無心하라’라는 명제에 대한 解法은, 위 第3項에서 ‘마음과 경계를 둘 다 함께 잊어야, 이것이 바로 참된 법이다(心境雙亡 乃是眞法)’라고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직지』를 抄錄한 백운경한은 각 祖師들의 길고 긴 語錄集의 여러 法語 중에서 핵심 부분만을 각각 짧게 발췌하고, 이들을 연속적으로 배치·나열·전개하여 抄錄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책 『직지』만을 차례대로 읽고 이해하기만 하면, 즉 별도 참고서 등을 추가로 보고 학습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직지』의 내용을 터득(得道)할 수 있는 ‘抄錄의 技法’을 活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⁰⁾ 그리하여 第2項의 초록에서 미진한 사항은 第3項에서 보완·마무리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위 인용문의 둘째 구절에서 ‘마음을 잇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妄心至難)’고 한 대목도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즉 ‘道人들이 마음을 취하면서도 그 마음을 잇기 어려운 이유는, 혹여 空(無記空)에 떨어져 부여잡을 바가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부분과, ‘그 空이 바로 한결같은 참된 법계(一眞法界)이다’라 하여, 마음을 취할 때 空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空이 바로 진실한 法界임을 제시함으로써, ‘마음은 곧 空(마음 = 空)’이라는 개념을 상징적으로 刻印시

28) 黃蘗希運, 『傳心法要』, 『古鏡』, 428-431. 參考.

29) 무비스님, 『직지 강설』 上, 312.

30) 즉 백운화상은 여러 조사들의 語錄을 초록하면서, 각 조사 어록의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 개 짧게 발췌하고, 이들을 연속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마치 퍼즐을 차례로 조합하여 일련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완성하는 형식의 ‘抄錄技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키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³¹⁾ 이 구절은 결국 ‘성품 = 마음 = 부처 = 法’이라는 公式이 성립되며, 동시에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道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無心하라’는 解法을 제시하고 있는 매우 상징적이고도 意味深長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 『직지』 황벽희운條 第4項은, ‘마음’ 소주제 중, ‘無心이 法이다’라는 要語의 法語라고 볼 수 있다. 즉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여러 부처님들은 모두 다 마음 법(心法)을 전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곧 말하기를, ‘마음 이외에 별도로 깨닫고 취할만한 어떤 법이 있다’고 여겨서, 마음을 가지고 법을 찾으면서 그 찾는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인 것을 알지 못한다. 실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면 천만 겁을 닦더라도 마음을 깨칠 [얻을] 날은 없을 것이다. 당장에 無心함만 같지 못한 것이니, 그 자리가 본래 法이다.”³²⁾³³⁾

31) 왜냐하면, 이 핵심 句節은 『傳心法要』[第5章]에서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靈覺性)’은 諸佛菩薩과 일체의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라도 똑같이 지닌 大涅槃의 성품이며, 이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法이니, 한 생각 참됨을 여의면 모두가 망상이 된다. 그러므로 道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無心하여 묵연히 계합하라(此靈覺性 … 諸佛菩薩 與一切蠢動含靈 同此大涅槃性. 性卽是心 心卽是佛 佛卽是法. 一念離眞 皆爲妄想. … 故 學道人直下無心 默契而已 擬心卽差.)”(黃蘗希運, 『傳心法要』, 『古鏡』, 430.)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白雲景閑, 『直指』 上卷, 木板本(1378), 第25張1面.

“師又云 ‘世人聞道諸佛皆傳心法 將謂心上別有一法 可證可取 遂將心覓法 不知心卽是法 法卽是心. 不可將心 更求於心. 歷千萬劫修 終無得日. 不知當下無心 便是本法.’”

33) 『직지』 황벽희운條에서는, 황벽선사의 語錄인 『傳心法要』 중 ‘無心’에 관한 해당 부분에서 다만 위와 같은 핵심 부분만을 발췌하여 抄錄하고 있다. 『傳心法要』에서는 위 인용문 뒤에 부연(敷衍)되어 있는 부분도 注目된다. 즉, “마치 힘센 장사가 자기 이마에 보배 구슬이 있는 줄 모르고, 밖으로 찾아 온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며 찾아도 결국 얻지 못하다가, 지혜로운 이가 그것을 가르쳐 주면 본래 구슬은 예와 다름이 없음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이다. 道를 배우는 사람도 자기 本心을 미혹하여 그것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다니면서 의식적으로 수행을 하며 차레를 밟아서 깨달으려 하지만, 억겁동안 애써 구한다 해도 영원히 道를 이루지 못할 터인즉, 당장 無心함만 못하다. /

일체의 法은, 있다 할 것도 얻었다 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머무를 것도 없으며, 주관이니 객관이니 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 妄念을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가

라 하였다. 이 인용문은 原典인 『傳心法要』[第3章 ‘근원이 청정한 마음’] 法語 중 중간 부분의 핵심만을 발췌한 것이다.³⁴⁾ 여기서는, 衆生들은 마음 이외[밖]에 별도로 깨달아야 하는 法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매함을 지적하면서, ‘깨치고 자[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法이고, 법이 곧 마음이다.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구할 수 없다’고 斷言하고, ‘깨치고자 한다면[마음을 얻으려면] 당장에 無心하라. 그것이 본래 法이다’라고 宣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대목은, 이른바 ‘깨달음의 핵심’을 직설적으로 說破하고 있음에 특히 注目된다. 즉,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이며, 그 마음이 바로 法이고, 마음을 깨치는 방법은 ‘당장에 無心하라’는 것이다’라고 明證(直證)하고 있다.³⁵⁾ 특히 이 부분은 ‘禪佛教의 核心’이며, 『직지』의 核’이고, ‘백운화상 無心禪의 골수(骨髓)’라고 指目된다. 왜냐하면, 黃蘗希運은 이 法語에서 ‘마음(心)’과 ‘無心’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아울러 깨달음의 방법을 직접 제시하고(直指) 있기 때문에, 백운화상은 이 부분을 『직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句節로 抄錄하였을 것임을 우리는 특히 留意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백운화상은 바로 이 부분을 발췌·초록하고 黃蘗希運條의 본론의 핵심으로 수록하면서도, 흡사 그야말로 ‘無心’하게 이 발췌문을 슬쩍 밀어 넣어 놓고는 시침을 딱 떼고 눈만 한번 썩긋거리는 것처럼, 讀者들이 『직지』의 이 부분을 학습하면서 ‘無心の 骨髓’를 隱然中에 認知하고 터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5) 『직지』 黃蘗希運條 第5項은, 제4項에 대한 부연설명이면서 동시에 ‘不生不

바로 깨치는 자리이다(不動妄念 便證菩提)(黃蘗希運, 『傳心法要』, 『古鏡』, 424.).”라고 부연함으로써, ‘당장에 無心하라’는 의미는 ‘忘念을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菩提) 임’을 증명하고 있다.

34) 黃蘗希運, 『傳心法要』, 『古鏡』, 423-425. 參考.

35) 현대에서 『직지』를 가장 명쾌하게 講說한 무비스님도 “불교에서 마음의 문제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와 같은 묘책을 모르고 엉뚱한 길을 찾아 헤맨다면 일생을 헛되게 보내게 될 것이다. 어찌 세상사뿐이겠는가. 공부에도 묘책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요령이 있다(무비스님, 『직지 강설』 上, 314.)”라고 특히 강조하고 있다.

滅이 부처이다’라는 要語로 이른바 ‘부처의 경지’를 설파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즉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셨다. “道를 닦는(學) 사람이 成佛하고자 한다면, 모든 부처님 法을 공부할 필요 없이, 다만 求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될 것이다.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멸(滅)하지 않을 것이니,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면 이것이 곧 부처(佛)이니라. / 道를 배우는 사람은 다만 한 생각만 있어도 두려워해야 할지니, 곧 [한 생각만 있어도] 道와는 멀어진다. 생각마다 상(相)이 없고 생각마다 함이 없으면(無爲) 이것이 곧 부처(佛)이니라.”³⁶⁾³⁷⁾

라 하였다. 이 인용문의 典據는 『傳心法要』[第4章 ‘不生不滅이 곧 부처’] 法語後尾 부분의 핵심만 발췌한 것이다.³⁸⁾ 그리하여, 道를 배워 成佛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장에 無心하라’고 斷言하고, 그 방법론으로써 ‘求하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멸하지도 않는, 이른바 不生不滅을 위한 無相無爲가 곧 成佛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백운화상은 『직지』 황벽희운條의 제1단락(마음(一心)) 5개항의 抄錄에서는, 黃蘗希運과 裴休와의 機緣(『宛陵錄』)을 필두로 하고 『傳心法要』 제3·5·3·4장의 핵심 法語들을 전개하여 ‘마음(一心)의 정의’와 ‘無心の 개념 및 그 해법’을 발췌·초록함으로써, ‘성품 = 마음 = 부처 = 法 = 無心’이라는 公式이 성립되어, ‘중생의 한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이니, 당장에 無心하라’는 黃蘗希運이 주장하는 ‘마음’의 문제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36) 白雲景閑, 『直指』 上卷, 木板本(1378), 第25張1面-第25張2面.

“師又云 學道人 若欲得成佛 一切佛法 總不用學 唯學無求無着. 無求 卽心不生 無着 卽心不滅 不生不滅 卽是佛. 學道人 只怕一念有 卽與道遠矣. 念念無相 念念無爲 卽是佛.”

37) 무비스님은 이 부분을 “不生不滅이 부처(佛)이다”라고 키워드(key-words)로 제시하고 있고, 덕산스님은 “부처님 경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① 무비스님, 『직지 강설』 上, 314. ② 덕산 역해, 『자유인의 길, 직지심경』, 187. 參照 要.).

38) 黃蘗希運, 『傳心法要』, 『古鏡』, 426-427. 參考. 다만 『직지』에 제시된 위 두 개의 문장은 그 原文이 倒置되어 있는 상황이다. 『직지』에서 위 문장을 도치시킨 이유는 ‘成佛’을 먼저 내세워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3. 黃蘗希運條 ‘無心’의 분석

『직지』 황벽희운條의 第6項부터 第10項까지의 5개 항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두 번째 단락(部)으로, 그 내용상 ‘無心’이라는 소주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백운화상은 黃蘗希運의 『宛陵錄』 중간 부분인 第15·3·10·10·16章의 범어들을 巧妙하게 혼합 배치함으로써, ‘無心’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說破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⁹⁾ 이들 5개 항의 法語 내용들을 각각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지』 黃蘗希運條의 第6項은, ‘無心’ 소주제 중 그 첫 번째 裝置로써, ‘無心이 道를 행함이다’라는 要語로 볼 수 있다. 즉,

“만약 마음이 없으면 이 道를 행하여 얻을 수 있겠습니까?”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셨다. “無心이 곧 道를 행하는 것이니, 다시 무엇을 얻고 얻지 못함을 말하는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경계(境)[에 부닥침 이]요, 만약 한 생각이 없어도 곧 경계[에 부닥침]이니라. 망령된 마음(妄心)이 저절로 소멸하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⁴⁰⁾

라 하였다. 이 法語의 典據는 『宛陵錄』[第15章 ‘無心한 行’]⁴¹⁾에서 확인된다. 이 때의 ‘無心’은 곧 ‘텅 빈 마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듯하다. 즉 ‘三毒(욕심(貪)·성냄(嗔)·어리석음(痴))과 팔만사천의 온갖 번뇌가 사라져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뜻한다’⁴²⁾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생각의 번뇌도 일어나지도 않는, 이른바 일체의 雜念이 소멸된 상태’가 바로 ‘無心’임을 설파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無心이 道를 行하는 것임에 ‘妄心の 소멸’을 당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9) 즉, 第2章의 5개 項이 黃蘗希運條 15개 항목 중에서 第1部이자 ‘緒論’이라면, 本章에서 논술되는 5개 항목의 내용은 그 第2部이자 ‘本論’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0) 白雲景閑, 『直指』 上卷, 木板本(1378), 第25張2面.

“問 若無心 行此道得否” 師云. “無心即便是行此道 更說什麼得與不得. 且如瞥起一念 便是境 若無一念便是境. 忘心自滅 無復可追尋.”

각괄호([]) 속의 내용은, 필자가 『완릉록』에 의거하여 보완한 것임.

41) 黃蘗希運, 『宛陵錄』, 『古鏡』, 486. 參照.

42) 무비스님, 『직지 강설』 上, 317.

2) 『직지』 黃蘗希運條의 第7項은 ‘無心’ 소주제 중 ‘法 有無에 대한 견해도 내지 말라’라는 要語로 볼 수 있다. 즉,

[황벽]선사가 말씀하셨다. “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없다는 見解도 내지 말라. 法은 본래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다는 견해도 내지 말라. 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모두 뜻(情)으로 헤아리는 견해이니라.”⁴³⁾

라 하였다. 이 인용문의 典據는 『宛陵錄』[第3章 ‘기틀을 쉬고 견해를 잊음’]의 앞부분을 발췌·초록하였음⁴⁴⁾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無心이 道를 行하는 것’이라 하였기에, 혹여 중생들이 이러한 法에 얽매일까 염려하여, 그 法이 있다·없다는 견해 자체도 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情으로 난 견해는 치우쳐 기울어진 삶을 말하는 것’⁴⁵⁾이기 때문에 철저한 無心을 다시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직지』 黃蘗希運條의 第8項은 ‘無心’ 소주제 중 ‘마음에는 妄想이 없음’이라는 요어로 볼 수 있다. 즉,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셨다. “妄想은 본래 실체가 없고 곧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난 바이다.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인줄 안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는 것이니, 어찌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망상을 오인하겠는가?”⁴⁶⁾

라 하였다. 이 인용문의 典據는 『宛陵錄』[第10章 ‘마음 밖에 다른 부처가 없다(心外無佛)’의 중간 부분]⁴⁷⁾에서 확인된다. 이 부분은, ‘중생들의 삶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망상·번뇌는 본래 實體가 없고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는 것’임에, ‘망상이 있다’는 착각을 경계하는 대목임을 파악할 수 있다.

43) 白雲景閑, 『直指』 上卷, 木板本(1378), 第25張2面.

“師云. 法本不有 莫作無見 法本不無 莫作有見. 有之與無 皆是情見.”

44) 黃蘗希運, 『宛陵錄』, 『古鏡』, 465. 參照.

45) 무비스님, 『직지 강설』 上, 318.

46) 白雲景閑, 『直指』 木板本(1378), 第25張2面.

“又云. 忘本無體 卽是汝心所起. 汝若識心是佛 心本無忘, 那得起心 更認於忘.”

47) 黃蘗希運, 『宛陵錄』, 『古鏡』, 485. 參照.

4) 『직지』 黃蘗希運條의 第9項은 ‘無心’ 소주제 중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라’라는 要語로 볼 수 있다. 즉,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셨다. “묻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깨달음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는가? 일상의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것(語默動靜)과 모든 소리와 빛깔(聲色)이 모두 다 부처의 일(佛事) 아님이 없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겠느냐?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올려놓을 수 없는 일이나라. 다만, 다른 견해만 일으키지 않으면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다 너의 本來面目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곳에 허다한 일들이 있겠느냐?”⁴⁸⁾

라 하였다. 이 인용문의 典據는 『宛陵錄』[第10章 ‘心外無佛’의 뒷부분]에서 확인되는 바,⁴⁹⁾ 아래 脚註에 제시된 『완릉록』 原文과 위 『직지』에서 인용된 내용의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여 보면, 白雲和尚은 『宛陵錄』 原典에서 重言復言되는 부분들은, 비록 原典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생략(삭제)하여, 『직지』에서는 해당 핵심 부분만을 抄錄함으로써 그 뜻을 더욱 明澄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요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부처의 일(佛事)’이라는 이른바 ‘人佛思想’⁵⁰⁾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衆生)이 그대로 온전하고도 완전무결한 부처’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8) 白雲景閑, 『直指』 木板本(1378), 第25張2面-第26張1面.

“又云. 問從何來 覺從何起? 語默動靜 一切聲色 盡是佛事 何處覓佛. 不可更頭上安頭也. 但莫生異見 三千世界 都來是个自己 何處有許多般.”

49) 黃蘗希運, 『宛陵錄』, 『古鏡』, 480.

“師云. 問從何來 覺從何起? 語默動靜 一切聲色 盡是佛事 何處覓佛. 不可更頭上安頭 禿上加禿 但莫生異見 山是山水是水 僧是僧俗是俗, 山河大地日月星辰 總不出汝心 三千世界 都來是个自己 何處有許多般(“묻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깨달음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는가? 일상의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것(語默動靜)과 모든 소리와 빛깔(聲色)이 모두 다 부처의 일(佛事) 아님이 없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겠느냐?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얹지 말며, 털뿔 위에 털뿔을 올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니라. 다만 다른 견해만 일으키지 않으면, 산은 산 물은 물이요,僧은僧俗은俗일 뿐이니라.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다 너의 본래면목(자신의 것)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곳에 허다한 일들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들은 모두 『직지』의 발췌·초록에서는 생략·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 무비스님, 『직지 강설』 上, 321.

5) 『직지』 黃蘗希運條의 第10項은 ‘無心’ 소주제 중 ‘三界은 없다’라는 要語의 法語로 볼 수 있다. 즉,

[어떤 것이 三界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셨다. “善과 惡을 모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곧 三界⁵¹⁾을 벗어나느니라. 如來께서 世間에 출현하신 것은 삼계(三有)⁵²⁾를 깨트리기 위함이다.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無一切心[≡無心]) 삼계도 또한 없느니라.”⁵³⁾

라 하였다. 이 인용문의 典據는 『宛陵錄』[第16章 ‘三界을 벗어나’]의 핵심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⁵⁴⁾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不思議 不思議’은 『六祖壇經』에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으로,⁵⁵⁾ 六祖惠能이 五祖弘忍으로부터 傳法한 후 그 증거인 衣鉢을 받아들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 大庾嶺에 이르렀을 때 혜능을 추격하여 온 惠明에게 說한 이른바 ‘惠能 최초의 설법’⁵⁶⁾이다. 여기에서 ‘不思議 不思議’이란 곧 ‘모든 善惡(善과 惡) · 彼我(너와 나) · 是非(옳고 그름) · 喜悲(기쁨과 슬픔) 등등 모든 兩邊에 치우친 상대적인 편견이나 대립된 생각을 벗어나야 비로소 일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지적하고 있다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적인 偏見과 分別心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三界을 깨트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51) 衆生이 사는 세계, 즉 欲界(食慾 · 色慾 · 財慾 등의 慾望이 강한 有情(마음을 가진 살아있는 衆生)이 머무는 세계).

52) 三有: 三界(欲界, 色界, 無色界)에서 제각기 생존하는 모습.

53) 白雲景閑, 『直指』 木板本(1378), 第26張1面.

“又云 善惡 都莫思量. 當處 便出三界. 如來出世 爲 破三有. 若無一切心 三界亦非有.”

54) 黃蘗希運, 『宛陵錄』, 『古鏡』, 480.

55) 六祖惠能, 光德 역, 『悟法傳衣(第一)』, 德異本 『六祖壇經』(서울: 불광출판사, 2011), 83-86.

56) “惠明이 소리쳤다. ‘행자(惠能)시여! 저는 法을 위하여 왔습니다. … 바라옵건대,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 ‘善도 생각하지 않고 惡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惠]明上座의 本來面目이고?’ 하니, 혜명이 言下에 大悟하였다(육조혜능, 『悟法傳衣』, 德異本 『육조단경』, (서울: 불광출판사, 2011), 84.).”

이상과 같이, 백운화상은 『직지』 황벽희운條의 제2단락(無心) 5개항의 抄錄에 서는, 『宛陵錄』 중간 부분인 第15·3·10·10·16章의 법어들을 巧妙하게 혼합 배치함으로써, ‘無心이 道를 行함이다’ 등의 無心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黃蘗希運의 명쾌한 回答들을 다양하고 細密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4. 黃蘗希運條 ‘당장에 無心하라’의 분석

본 장에서는 『직지』 상권 황벽희운條 15개 法語 중 第11項부터 第15項까지 5개항의 법어는 ‘당장에 無心하라’라는 단위 소주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⁵⁷⁾ 왜냐 하면, 이들 5개항의 典據는 『傳心法要』의 제6장과 제7장에서 각각 2개의 항목들을 발췌하였고, 제15항인 마지막 항목은 『傳心法要』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第2章] ‘無心이 道’ 중에서도 또 그 핵심 부분만을 발췌함으로써, 이른바 『직지』 黃蘗希運條의 大尾를 장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 5개항을 각각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지』 黃蘗希運條의 第11項은 ‘당장에 無心하라’ 소주제 중 그 첫 번째 裝置로써 ‘無心하면 境界가 없다’라는 要語의 법어라 할 수 있다. 즉,

[황벽선사는] 또 말씀하셨다. “범부는 모두 경계를 좇아 마음을 내어서, 마음이 기빠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만약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잊어야 한다. 마음을 잊으면 곧 경계가 텅 비며, 경계가 텅 비면 곧 마음은 없어진다. 만약 마음을 잊지 못하고(若不忘心) 그 경계만 없애려 한다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어지러움만 더할 뿐이다. 그러므로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그 마음조차도 얻을 수 없는데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⁵⁸⁾

57) 즉, 第2章의 5개 項이 黃蘗希運條 15개 항목 중에서 第1部이자 ‘緒論’이라면, 本章에서 논술되는 5개 항목의 내용은 그 第3部이자 ‘結論’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8) 白雲景閑, 『直指』 木板本(1378), 第26張1面.

“師云. 凡夫皆逐境生心 心遂忻厭. 若欲無境 當忘其心. 心忘即境空 境空即心滅. 若不忘心[≡無心] 但除其境 境不可除 只益紛擾. 故萬法唯心 心亦不可得 復何求哉.”

라 하였다. 이 法語의 典據는 『傳心法要』[第6章 ‘忘心’의 중간 부분]⁵⁹⁾에서 原文이 확인된다. 위 인용문은 ‘범부들은 경계를 좇아 마음을 내는데,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마음을 잊어야(妄心), 즉 無心해야 境界가 없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妄心이 곧 無心(忘心 ≡ 無心)’을 알 수 있다.

2) 『直指』 黃蘗希運條의 第12項은 ‘당장에 無心하라’는 소주제 중 ‘마음과 경계는 하나이다(心境一如)’라는 要語로 압축할 수 있다. 즉,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셨다. “凡夫들은 죽을 때에 다만 五蘊이 모두 空하고 四大⁶⁰⁾는 ‘나(我)가 없음(無我)’을 본다. 그러나 참된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無相)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다. 태어날 때에 성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성품이 가는 것도 아니다. 지극히 맑으면서 매우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는 하나이다(心境一如). 다만 능히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단박 깨쳐 三界에 얽매이지 않으니, 곧 世間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결코 털끝만 큼이라도 나아가는 향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설령 훌륭한 모습과 諸佛이 와서 환영하며 가지가지 신기한 모습들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또한 마음에 팔려감에 없어야 한다. 만약 가지가지 나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도 또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고서 法界와 같아지면, 곧바로 自在함을 얻은 것이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要節)이다.”⁶¹⁾

라 하였다. 이 법어의 典據는 『傳心法要』[第6章 ‘忘心’의 뒷부분]⁶²⁾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말하는 ‘五蘊皆空·四大無我’는 석가모니 敎示의 基底에 있는 ‘不生不滅의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 ‘마음과 경계는 하나이다(心境一如)’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動搖되지 않는 마음’이 바로 無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치임을 豫告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9) 黃蘗希運, 『傳心法要』, 『古鏡』, 432-434. 參照.

60) 四大: 사람의 몸은 ‘地·水·火·風’의 네 가지 氣運으로 이루어졌다는 개념.

61) 白雲景閑, 『直指』 木板本(1378), 第26張1面-第26張2面.

“又云. 凡人 臨欲終時 但觀五蘊皆空 四大無我. 眞心 無相 不去不來. 生時 性不會來 死時 性亦不會去. 湛然圓寂 心境一如. 但能如是 直下頓了 不爲三界所拘繫 便是出世人也. 切不得有分毫趣向 若見善相 諸佛來迎 及種種現前 亦無心隨去. 若見惡相 種種現前 亦無心怖畏. 但自妄心同於法界 便得自在 此是要節也.”

62) 黃蘗希運, 『傳心法要』, 『古鏡』, 432-434. 參照.

3) 『직지』 黃蘗希運條의 第13項은 ‘당장에 無心하라’의 소주제 중 ‘마음이 법이다(心卽法)’라는 要語의 법어이다. 즉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흔히 敎法에 있어서는 깨닫는 것이 많으나, 마음법(心法)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록 劫(劫)을 지나도록 수행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본래의 부처는 아니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敎)만 무겁게(重) 여겨서 ‘흠덩이나 쫓는 [개]’⁶³⁾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본마음(本心)을 잊었기 때문이다. 다만 本心에 계합하면 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法이다(心卽法).”⁶⁴⁾

라 하였다. 이 법어의 典據는 『傳心法要』[第7章 ‘마음이 법이다(心卽法)’ 前半의 뒷부분]에 제시된 핵심 설법을 발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서는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법(心法)을 무겁게 여겨서, ‘마음이 곧 法이다’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그 要旨이다. 그리하여 이 법어에서는 이른바 ‘心佛返照 看經無益’⁶⁵⁾의 개념을 앞세워, 敎法(經典)보다 心法(本心)을 더욱 중요시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직지』 黃蘗希運條의 第14項은 ‘당장에 無心하라’는 소주제 중 ‘마음을 비우기(空)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空하다(但令心空 境自空)’라는 要語의 법어이다. 즉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현상(事)이 본체(理)를 흐리게 하여, 항상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히 하려하고, 현상을 물리쳐서 본체를 보존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다만,

63) ‘흠덩이나 쫓는 [개]’: 사람이 흠덩이를 던지면, 영리한 사자는 사람을 물고, 미련한 개는 흠덩이만 쫓아간다는 말임.

64) 白雲景閑, 『直指』 木板本(1378), 第26張2面.

“又云. 學道人 多於敎法上悟 不於心法上悟 唯億劫修行 終不是本佛. 若不於心悟 乃至於敎法上 悟即輕心重敎 遂成逐塊 忘於本心故. 但契本心 不用求法 心卽法也.”

65) 青梅 조사의 가르침으로, 모든 經典의 가르침을 마음에 반조하여 이해하여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經을 읽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本心에만 계합하면 더는 구할 것이 없다. 마음이 모든 것이며 마음이 곧 법이기 때문이다(무비스님, 『직지 강설』 上, 327.).

마음을 비우기만(空) 하면 경계는 저절로 공(空)하고, 본체를 고요하게만 하면 현상은 저절로 고요해지므로, 마음을 거꾸로 쓰지 말아야 한다.”⁶⁶⁾

라 하였다. 여기서는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空하여 짐’을 說破함으로써 ‘마음이 法이다’는 것을 몸소 익히게 함을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직지』의 제13항과 제14항으로 연속된 두 인용문은 原典인 『傳心法要』[第7章 ‘마음이 법이다(心卽法)’]의 전반부 뒷부분의 핵심 두 문장을 연속적으로 발췌·초록⁶⁷⁾함으로써, 이른바 ‘無心’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마음이 바로 法이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직지』 黃蘗希運條의 第15項은 ‘당장에 無心하라’는 제3단계 소주제 중 마지막 裝置로써 ‘당장에 무심하라(直下無心)’라는 要語로 볼 수 있는 法語이다. 즉

[황벽선사가] 또 말씀하셨다. “도를 닦는 사람은 ‘당장에 無心하라! 그렇지 못하면 무한한 짐을 지나더라도 쫓스러운 道를 이루지 못한다. 능히 당장에 無心하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究竟)이다(又云. 學道人 若不直下無心 從經塵劫 不成聖道. 若能直下無心 便是究竟.)’”⁶⁸⁾

라 하였다. 이 인용문의 핵심은, 道를 이루는 방법은 ‘당장에 無心하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究竟)이다’라고 啓示하고 있는 句節이다. 이 法語의 典據는 『傳心法要』[第2章]에서 ‘無心’에 관한 특유하고도 명쾌한 정의가 보인 후 ‘당장에 무심하라(直下無心)’고 제시하는 句節이 바로 그 原文임을 注目해 볼 수 있다. 즉,

시방(十方)의 諸佛께 공양 올리는 것이 無心道人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無心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 / 그런데 지금 道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으려 하지 않고,

66) 白雲景閑, 『直指』 木板本(1378), 第26張2面.

“又云 凡人多爲境界心導事導理 常欲逃境以安心 併事以存理. 不知乃是心導境理導事 但令心空 境自空 理寂 事自寂 勿倒用也.”

67) 黃蘗希運, 『傳心法要』, 『古鏡』, 435-436., 438. 參照.

68) 白雲景閑, 『直指』 木板本(1378), 第26張2面.

마음 밖의 경계인 모양에 집착하여 오히려 道를 등지고 있다. 부처님께서
 ‘갠지스강의 모래(恒河沙)’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래는 佛菩薩과 재
 석·범천(釋梵)·諸天들이 자기를 밟고 지나간다 해도 기뻐하지 않고, 소·
 양·벌레·개미 등이 자기를 밟고 지나간다 해도 성내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
 다. 또한 갠지스강의 모래는 보배나 향기를 탐하지도 않으며, 똥오줌 냄새나는
 더러운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곧 無心한 마음으로서, 모든 모양
 (相)을 떠난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서로 다를 것이 없으니, 능히 無心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다(但能無心 便是究竟).⁶⁹⁾

道를 닦는 사람은 당장에 무심하라! 그렇지 못하면, 비록 여러 겁을 수행하러
 라도 끝내 道를 이루지 못한다(學道人 若不直下無心 累劫修行 終不成道).⁷⁰⁾

라 하였다. 즉, 『직지』에서 초록된 위의 첫째 인용문은, 그 典據인 『傳心法要』[第
 2章]의 둘째 인용문과 대조하여 보면, 원전 해당 구절의 두 번째 문단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 첫 번째 문단의 끝 부분을 倒置시킴으로써, 이른바 ‘終結의 辯’으
 로 강조하여 黃蘗希運條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道를
 닦는 사람은 당장에 無心하라! 당장에 無心하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
 음이다!”라는 宣言의인 메시지를 『직지』 黃蘗希運條의 결론적인 法語로 제시하
 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⁷¹⁾

69) 여기에서 황벽선사는,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갠지스강의 모래(恒河沙)’를 예로 들면서, ‘無
 心이란, 기뻐해야 할 일도 기뻐하지 않고(不喜), 화를 내야 할 일도 성내지 않고(不怒),
 탐내야 할 것도 탐내지 않고(不貪), 싫어해야 할 것도 싫어하지 않는(不惡), 이른바 ‘相이
 없는 마음(無相心)’이 바로 無心이다’라고 定義하고 있다. 즉 ‘無心이란, 喜怒貪惡의 그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마음의 動搖가 일어나지 않는 境地’(즉 흔들림이 없는 이른바
 ‘無搖의 경지’)라고 해석되며, 과연 ‘이렇게 無心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
 (究竟)’이라고 斷言하고 있다.

70) 黃蘗希運(裴休 集記), 『傳心法要』, 『古鏡』 (합찬: 藏經閣, 佛紀2538), 420-422.
 “供養十方諸佛 不如供養一箇無心道人 何故 無心者 無一切心也 如如之體 … 今學道人
 不向自心中悟 乃於心外 着相取境 皆與道背. 恒河沙者 佛說是沙, 諸佛菩薩 釋梵諸天
 步履而過 沙亦不喜, 牛羊虫蟻 踐踏而行 沙亦不怒, 珍寶馨香 沙亦不貪 糞屎臭穢不惡.
 此心即無心之心 離一切相. 衆生諸佛 更無差別 但能無心 便是究竟. / 學道人 若不直下無
 心 累劫修行 終不成道.”

71) 게다가 황벽선사는 ‘깨침(悟: 佛)에 대한 가능성과 일관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傳心法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黃蘗希運은 『傳心法要』[第15章]에서 “너의 지금 行
 住坐臥(一舉一動)에 항상 無心を 닦아(學) 오래오래 되면 반드시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은 역량이 부족하니 단박에 뛰어넘지는 못한다. 다만 3년이나 5년 혹

바로 위와 같은 백운화상의 抄錄技法에서 우리는, 백운화상이 『직지』에서 각 祖師의 法語들을 抄錄하면서 미래의 讀者들에게 ‘道를 닦는 마음’의 수련을 위한 隱然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백운화상의 세련되고 깊은 配慮性을 感知할 수 있다. 위와 같은 黃蘗希運의 ‘당장에 無心하라’는 ‘마음(心)의 修行 및 깨달음(悟)의 방법’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이자 논리적 命題¹⁰⁾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백운화상은 『직지』 황벽희운條의 제3단락(‘당장에 無心하라’) 5개 항의 抄錄에서는, 그 典據인 『傳心法要』의 第6・6・7・7・2章의 핵심 부분만을 발췌하여 수록함으로써 먼저 ① ‘無心하면 境界가 없어짐’을 강조하고, ② ‘마음과 경계는 하나이다(心境一如)’라는 점을 설파하여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動搖되지 않는 마음’이 바로 無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치임을 豫告하고 있다. 그리하여 ③ ‘마음이 法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④ 그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空하여 짐’을 說破한 후, 드디어 그 깨달음의 방법으로써 ⑤ ‘당장에 無心하라(直下無心)’, 이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究竟)이다’라고 提示함으로써, 黃蘗希運條 ‘당장에 無心하라’의 大尾를 장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5. 결 론

이상의 본론에서는, 백운화상 景閑이 『직지』에 초록한 각 祖師의 法語 중, ‘無心’이라는 要語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黃蘗希運條의 15個項 법어들의 내용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7세기 後期の 六祖惠能에 의하여 胚芽된 ‘無念・無心’이 9세기 前期의 黃蘗希運 시대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 考究하여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직지』 上卷에 抄錄된 黃蘗希運條 15個項 法語의 典據는 그 내용상

10년만 지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얻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你如一切時行住坐臥但學無心 久久, 須實得. 爲你力量小 不能頓超. 但得三年 五年 或十年 須得箇入頭處 自然會去(黃蘗希運, 『傳心法要』, 『古鏡』, 454-455.)).”라 하였다. 白雲和尚도 역량이 부족한 제자들을 지도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누누이 당부하였을 것 같은 句節이다.

‘①『宛陵錄』(제18장)과 『傳心法要』(제3·5·3·4장), ②『宛陵錄』(제15·3·10·10·16장), ③『傳心法要』(제6·6·7·7·2장)’라는 3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① 마음(一心), ② 無心, ③ 直下無心(당장에 無心하라)’라는 소주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黃蘗希運條에서는, 『傳心法要』와 『완릉록』 수록 핵심 法語 15項을 巧妙하게 배치·전개시킴으로써, ‘한마음(一心) 및 無心’에 관한 가장 명쾌하고 完熟된 경지를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백운화상 景閑이 『직지』를 抄錄한 技法은, 백운화상은 石屋清珙(1272-1352)의 『佛祖直指心體要節』⁷²⁾을 비롯한 『六祖壇經』 등 각 祖師들의 語錄集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法語 중에서 이른바 ‘핵심 중의 핵심’ 부분만을 각각 짧게 발췌하고, 이들을 교묘하게 연속적으로 배치·나열·전개하여 수록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백운화상은 여러 조사들의 語錄을 초록하면서, 각 祖師語錄의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여러 개 짧게 발췌하고, 이들을 연속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마치 퍼즐을 차례로 조합하여 일련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완성하는 형식의 ‘抄錄技法’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後代の 독자들이 이 책 『직지』 한권만을 차례대로 읽고 이해하기만 하면, 즉 별도 참고서 등을 추가로 보고 학습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禪修行의 내용과 방법을 터득(得道)할 수 있도록 하는 ‘抄錄의 技法’을 活用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제2장에서는, 백운화상은 『직지』 황벽희운條의 처음 5個項(제1단락: 마음(一心))의 抄錄에서, 황벽희운과 배후와의 機緣(『宛陵錄』)을 필두로 하고 『傳心法要』 제3·5·3·4장의 핵심 法語들을 전개하여 ‘마음(一心)의 정의’와 ‘無心の 개념 및 그 해법’을 발췌·초록함으로써, ‘성품 = 마음 = 부처 = 法 = 無心’이라는 公式이 성립시킴으로써 ‘중생의 한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이니, 당장에 無心하라’는 黃蘗希運이 주장하는 ‘마음’의 문제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72) 石屋清珙의 『불조지지심체요절』과 백운화상이 저술한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은 別個의 도서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백운화상의 『직지』 書名에서 ‘白雲和尚抄錄’이라고 특별하게 記入하여 넣었던 史實을 본다면, 이러한 記載은 이른바 석옥청공의 저술보다 더 상세하거나 아니면 별개의 사항들을 많이 초록하여 새롭게 편찬하였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 書名에 ‘白雲和尚抄錄’이라고 特別記入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있음을 파악하였다.

넷째, 제3장에서는, 백운화상은 『직지』 황벽희운條의 제2단락(無心) 5개항의 抄錄에서, 『宛陵錄』 중간 부분인 第15・3・10・10・16章의 법어들을 巧妙하게 혼합 배치함으로써, ‘無心이 道를 行함이다’ 등의 無心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黃蘗希運의 명쾌한 回答들을 다양하고 細密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제4장에서는, 백운화상은 『직지』 황벽희운條의 제3단락(‘당장에 無心하라’) 5개항의 抄錄에서, 그 典據인 『傳心法要』의 第6・6・7・7・2章의 핵심 부분만을 발췌하여 수록함으로써 먼저 ① ‘無心하면 境界가 없어짐’을 강조하고, ② ‘마음과 경계는 하나이다(心境一如)’라는 점을 설파하여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動搖되지 않는 마음’이 바로 無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치임을 豫告하고 있다. 그리고 ③ ‘마음이 法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④ 그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空하여 짐’을 說破한 후, 드디어 그 깨달음의 방법으로써 ⑤ ‘당장에 無心하라(直下無心), 이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究竟)이다’라고 提示함으로써, 黃蘗希運條의 大尾를 장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요컨대, ‘中國禪佛教에서의 無念・無心’은 菩提達磨 이래, ① 7세기 후기의 六祖惠能에 의하여 ‘無念’으로 胚芽되었고, ② 8세기 중기에 南陽慧能에 의하여 ‘無心’으로 發芽되었으며, ③ 8세기 후기에 馬祖道一에 의하여 ‘마음(心)이 바로 부처(佛)이며, 平常心이 道이면서 또한 無心이다’라는 개념이 곧 ‘無心の 開花’로 정립되었음을 이미 파악하였다.⁷³⁾ 이에 본고에서는 『직지』 상권 黃蘗希運條를 정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그 내용은 ‘마음(一心), 無心, 直下無心(당장에 무심하라)’이라는 소주제의 法語들을 각각 5項씩 초록함으로써 ‘無心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함’이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7세기 후기에 육조혜능에 의하여 胚芽된 ‘無念・無心’의 思想은, ④ 9세기 전기에 黃蘗希運에 의하여 ‘無心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됨’으로써 드디어 ‘無心の 結實’을 맺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73) 김성수,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5집 (2013. 9), 183-225.

<참고문헌>

白雲景閑.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上卷. 한국학중앙연구소(藏書閣)
소장본, 木板本.

釋景閑 抄錄.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604-636.

김성수.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4호(2012. 11). 119-146.

김성수.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5집(2013. 9). 183-225.

김성수. “『직지』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변증.” 『서지학연구』 제57집(2014. 3).
83-119.

德山 釋解. 『자유인의 길, 直指心經』. 서울: 비움과 소통, 2011.

無比 譯註. 『백운스님 어록』. 서울: 민족사, 1999.

무비 스님. 『직지 강설』 상·하. 서울: 불광출판사, 2011.

六祖惠能, 光德 譯. 德異本 『六祖壇經』. 서울: 불광출판사, 2011.

鄭性本.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서울: 民族社, 1991.

鄭性本. 『禪의 歷史와 禪思想』. 서울: 三圓社, 1994.

鄭性本. 『禪의 歷史와 思想』. 서울: 불교시대사, 1999.

최석환 편저. 『석옥·태고 평전』. 서울: 茶의 세계, 2010.

退翁性徹 編譯. 『古鏡』. 경남 합천군: 장경각, 불기2537.

黃蘗希運, 裴休 [記]. 『宛陵錄』. 『古鏡』. 합천: 장경각, 불기2537. 459-534.

黃蘗希運, 裴休 [記]. 『傳心法要』. 『古鏡』. 합천: 장경각, 불기2537. 411-449.